

라면 너마저... 식품물가 '들썩'

맥주·라면 5~10% 인상... 위스키·제과제빵도 대기중



라면과 맥주값이 오르는 등 억눌려 있던 식품·주류업계의 제품 가격 인상 욕구가 분출할 조짐이다.

작년말부터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 정부와 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 압박을 호소할 업계는 사실상 신경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까지 간' 업체들이 제품가 인상 카드를 과감히 꺼내 들고 있는데 물가 당국에서도 업체들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시하고 '너 잡아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라면·맥주값 5~10% 인상 = 삼양식품은 내달 1일부터 '삼양라면'의 가격을 700원에서 770원으로 10% 올리는 등 6개 품목 소비자가격을 5~10% 올린다고 27일 밝혔다.

삼양식품은 2008년 3월 이후 4년4개월 만에 제품가를 인상하게 된다. 하이진로로 28일부터 맥주 출고가

를 5.93% 인상한다. 500ml 제품의 출고가는 1019원에서 1079원으로 60원 오르며 하이진 등 일반 소매점의 판매가격은 80원 정도 오를 전망이다.

작년말 오비맥주가 수차례 출고가 인상 시도를 했다가 주류업 허가 당국인 국제청 등의 눈치를 보느라 철회했을 당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던 하이진로로는 인상 의지를 드러낼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맥아, 보리 등 맥주의 주원료 가격 상승과 포장재료, 운송비 상승 등 가격 인상 압박을 더 견딜 수 없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이진로로는 그러나 서민 경제에 너무 밀접한 소주만큼은 아직 인상 계획이 없다는 생각이다.

동원F&B도 참치캔 가격 인상을 놓고 경영진이 고민을 거듭하다 7.6% 인상안을 최근 확정하고 유통업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로도 올려야는데...' = 불황의 직

격탄을 맞은 위스키업체도 출고가를 올리지 못해 안달이다.

상반기 위스키 판매량이 작년보다 10.1% 감소한 가운데 업체별로 디아지오, 코리야의 주력 제품인 윈저는 4% 줄었고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임페리얼'은 14.7%나 떨어졌다.

롯데칠성 '스카치블루'도 11.4% 하락했다. 디아지오는 지난 4월 제품 생산비와 물류비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면서 공급 가격을 6% 안팎으로 인상하려 했다가 '유보'했다.

식품업계도 '인상 대기' 선상에 줄지어 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햇반과 다시다 등의 제품가를 8~9% 인상한다고 대형마트에 통보해둔 상황이다.

작년초부터 제품가 인상을 고려해온 제빵·제과업체들도 최근 국제 곡물가가 치솟으면서 원재료 상승 부담이 가중된 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로도 올려야는데...' = 불황의 직

광주 51개 기업 '고용 우수'

전년보다 2.6배 늘어... 723명 고용창출

광주지역 고용 우수기업이 대폭 늘었다. 광주시는 지난 26일 고용 우수기업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창출 실적과 근로환경 등이 우수한 51개 기업을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역 고용 우수기업은 지난 2010년 19개, 2011년 20개였던 감안하면 올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올해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51개 기업은 1년간(2011년 6월~2012년 5월) 총 723명을 추가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평균 중소기업은 22명, 소기업은 8명의 고용이 각각

증가했다. 업소용 냉장고 등을 생산하는 프리미어와 전자·전기기기 전문업체인 리엔텍 광주공장의 고용인원이 각각 54명과 41명 증가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 나산산업, 오이솔루션, 달마전자, 화산산업 등도 30명 이상을 추가 고용한 우수기업이다.

또한, 현성오토텍, 우리로광통신, 하이코리아, 지티에스, 경광기업, 나영산업, 링크옵틱스, 에프엔 등 8개 기업은 2010년에 이어 올해에도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고용 우수기

업에는 다음달 말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한다.

인증기간 2년 동안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3억→5억)과 이차보전 등 우대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인하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 ▲수출진흥자금 우선 지원 ▲시 중소기업 청년 인턴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전자무역 프론티어 지원 ▲디자인상품화 지원 등 최대 15가지의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용 우수기업 선정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일자리 만들기 분위기가 확산하고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새마을금고 중앙회 광주 동구·화순협의회는 지난 28일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생명공제 1조원 달성 한마음대회를 갖고 회원들 간의 화합의 장을 가졌다. (동구·화순협의회 제공)

생명공제 1조원 달성 '한마음대회'

새마을금고 광주 동구·화순 협의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광주 동구·화순 협의회는 지난 28일 광주신양파크호텔 대연장에서 협의회 산하 12개 새마을금고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공제 1조원 달성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광주 동구·화순 협의회는 생명공제(보험)사업 판매 20주년이 되는 지난 6월말 기준 광주권 새마을금고 협의회 중 최초로 생명공제 유효계약액 1조423억원을 달성하는 금자탑을

쌓았다. 특히 광주·전남 105개 새마을금고 중 12개 금고로 이루어진 동구·화순협의회는 지역 주민의 필요로 생활과 꿈이 있는 미래를 위해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생활금융과 문화 복지후생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을 통해 회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또한 금고 운영에도 정도경영을 통해 회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지역공동체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주민합동조직으로서 전통적인 상부상조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1963년 설립 후 50여년간 지역경제 구심체 및 국가경제 발전의 초석으로 서민금융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조신종 동구·화순협의회 회장은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정도경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회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새 대출 기준금리 0.1%p 하락

내달 확정

새로 개발되는 대출 기준금리가 현행보다 최대 0.1%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새 금리지표를 적어도 매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 소비자들은 기존 대출에 이자표를 적용할 수 있는 절차를 은행이 마련할 방침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단기지표금리 개선 태스크포스(TF)는 단기 코픽스(COPIX·은행자금조달지수)를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의 유력한 대안으로 삼아 이르면 다음 달 확정한다. TF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TF는 단기 코픽스를 산출하는 데 쓰이는 조달 자금의 만기를 평균 3개월로 맞추기로 했다. 현행 코픽스는 평균 만기가 9개월이다. 만기가 짧아져 금리가 내려가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달 CD금리는 평균 3.54%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3.62%보다 0.08%포인트 낮다.

TF에 참여한 한 민간 전문가는 "단기 코픽스는 현행보다 최대 0.1%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TF는 단기 코픽스를 매주 또는 격주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매주 발표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TF의 한 관계자는 "TF에서 발표 주기가 짧아질수록 좋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은행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적당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로도 올려야는데...' = 불황의 직

스마트폰 3천만 시대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다음 달 30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27일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SK텔레콤 1440만명, KT 930만명, LG유플러스 560만명 등으로 총 2930만명에 이른다. 전국민의 60% 이상인 3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셈이다.

3사가 하루 3만~5만명의 스마트폰 가입자를 새로 유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이면 우리나라에 스마트폰 이용자 3000만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이폰을 처음 도입한 지난 2009년 11월 스마트폰 열풍이 불기 시작해 불과 1년4개월 뒤인 지난 해 3월말 스마트폰 가입자 1000만명 시대를 여는 등 초고속 성장을 했다.

이후 스마트폰 시장이 급속히 커져 7개월 뒤인 작년 10월말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3000만명을 돌파하기까지는 이보다 2개월여 뒤인 9개월 이상이 걸리게 됐다. 증가 속도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됐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올해 1~6월 공·항만에서 세관이 유치한 여행사 휴대용품 건수는 15만 8465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2만 9186건)보다 23% 증가했다.

특히 명품 핸드백, 고급시계, 명품잡화, 주류 등 사치성 물품의 유치 건수는 6만4455건으로 53.07%나 늘었다. 2010년(3만3415건)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불황에도 사치성 여행물품 53% 증가

올해 상반기 국외 여행자들이 면세 한도(미화 400달러 이하)를 초과해 사치성 물품을 국내로 갖고 들어오다 세관에 적발된 건수가 작년보다 53%나 급증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에도 국외 여행객의 고가 물품 쇼핑 풍토는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29일 관세청이 내놓은 '상반기 주요 품목별 유치물품 현황'에 따르면

환상제주 여름시즌 BIG HIT! 제주여행

3년 연속 "올해의 항공사상" 수상! 아시아나항공과 함께하는 짜릿한 제주여행~

신비의 섬 "제주 탐방" 투어

광주공항 출발 (아시아나항공) 아리아나항공

왕복 2박3일 (일박호텔 2인1실기준) 1인 ₩299,000~

왕복 2박3일 (일박호텔 1인1실기준) 1인 ₩209,000~

목포항출발 (씨스타크루즈) 씨스타크루즈

왕복 2박3일 (일박호텔 1인1실기준) 1인 ₩199,000~

제주도골프투어=항공골프패키지 (1박2일)

₩449,000~ / 주말 ₩539,000~

₩519,000~ / 주말 ₩609,000~

1일 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 "환상제주" 피켓팅 **이호태우래(해수욕장) or 올레4코스 체험(용연~도두봉) - 호텔 체크인 및 자유시간**

호텔 조식 후 관광 - 성안약해계소 남안의 생물 "성남생" 시음 - 한라산 숲터널 경유 **휴애리자연생태공원 - 석부작태마공원 - 중식(고동어조림) - 제주국제평화센터** (선박관광)신방산유람선 - 화순곶자왓 생태탐방숲길(트레킹) - "칭기스칸의 검은 깃발" 디마파크 공연 **석식(개별식) - 호텔 체크인 및 자유시간**

2일 호텔 조식 후 관광 - 탐라원(토산품점) - (선박관광)매직 아일랜드 or 라스베가스 매직타이거쇼 **산나무술길 경유 - 6~70년대 서울에 모습과 잊혀지는 옛 모습! 신니와나무꾼 - 조랑말승마체험 중식(토종돼지고기+숙련+잡살막걸리) - 성읍민속마을(전통초가마을체험)**

3일 천가지 아름다운이 있는 미천굴관광지구 **임술랜드** **성산일출봉의 아름다운 지대와 탁 트인 해안절경 성지코지** **종달리 해안도로 경유 - 해녀촌 - 농수산물 소품** **제주공항 도착 후 피켓팅 - 광주공항 도착**

신라호텔 (7월 19일~8월 6일 출발) + 항공료, 숙박료, 조식 2회, YF급 렌트카 54시간 /인원추가, 전망추가 별도문의 **1인 813,000원**

신라호텔 (8월 7일~8월 26일 출발) + 항공료, 숙박료, 조식 2회, YF급 렌트카 54시간 /인원추가, 전망추가 별도문의 **1인 700,000원 ~ 740,000원**

여행사 파트너 모집 광주/전남 T.062-675-0064 담당: 공지혜 대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번지 금호종합금융 8층 | 제주 T.1600-4800 서울 T.02-6404-4708 부산 T.051-469-7030 대구 T.053-425-0747

환상제주 여행문의 하이센스여행사 350-6222 이유여행사 374-1881 메이투어 070-7093-0555 한별투어 956-0045 첨단/투어디자인 974-3050 무등파크여행사 228-7470 동구/다니엘여행사 227-7422